

넥슨 '프라시아 전기', 스토리·재미·대중화로 흥행 돌풍

PC·모바일 양대 마켓서 1위 기록
공성전 대중화로 진입장벽 낮춰
스토리텔링·어시스트 모드 호평

넥슨의 '프라시아 전기'가 출시 이후 양대 마켓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의 흥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또 전체 매출 중 PC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모바일 매출 순위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호평을 얻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초대형 MMORPG '프라시아 전기'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 MMORPG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차별화된 콘텐츠와 깊이 있는 재미를 앞세워 진정한 MMORPG를 완성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상위 플레이어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점'을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게임성을 선보이고, 보유한 거점을 결사원(길드원)들과 함께 경영하는 재미를 더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자 부여된 역할을 통해 고도화된 커뮤니티 경



프라시아 전기 키비주얼.

/넥슨

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프라시아 전기'에 더욱 몰입하도록 하는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과 사운드(BGM), 그래픽을 선사한다.

'프라시아 전기'는 한렐름(서버)안에 21개의 거점을 제공해 누구든 쉽게 거점을 공략해 보유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고, 더 나아가 거점을 경영하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특정 결사가 거점을 독점할 수 없도록 드넓은 심리스 월드에

서 먼 거리를 캐릭터가 직접 이동하도록 설계했고, 각 영지별로 보스 몬스터, 각종 자원, 사냥터의 밸런스를 조정해 '공성전의 대중화'를 실현했다.

'프라시아 전기'의 핵심은 플레이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재미다. 캐릭터 성장은 모든 개인이 공유하는 목표지만 결사의 목적은 제각기 다르다. 어떤 거점을 공략할지, 다른 결사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지 등 수많은 플

레이어들이 모여 있는 프라시아 세계에 결사가 나아가갈 방향 및 전략은 결사원들이 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한 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거점 공략에 성공한 결사들은 거점을 방어하거나 결사를 위한 연구, 제작에 몰두하며 경영에 힘쓰고 있고, 상대방의 거점을 공략할 결사는 파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2주간격으로 열리는 추가 주둔지들과 더 나아가 높은 등급의 거점 '요새', '론도 대성채'까지 오픈되면 더욱 생생하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라시아 전기'를 처음 마주한 플레이어 대부분이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에 호평을 보낸다. '프라시아 전기'는 엘프와 인간의 군상극을 그리고 있으며, 메인 스토리를 해금하며 프라시아 대륙의 역사, 인간 연합 내 갈등과 화합 등 게임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현존 최고 수준의 그래픽과 연출 역시 재미에 풍미를 더한다. 배경, 몬스터, 초목, 캐릭터 복장 등 게임 속 모든 요소를 4K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게임에 접속하지 않아도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능의 '어시스트 모드' 역시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꾸준한 플레이가 필요한 MMORPG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인게임 내 캐릭터 상황, 자동정비, 추종자 재 파견 등 게임에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 및 조작이 가능해 '프라시아 전기' 플레이어들에게는 필수 사용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플레이어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어시스트 모드를 활용하며, 자신만의 템포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어서 플레이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만큼 게임 접속률은 높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현 넥슨 신규개발본부 부사장은 "프라시아 전기"는 그간 경험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재미와 MMORPG 본연의 재미를 갖추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공을 들인 프로젝트다"라며 "좋은 평가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서비스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거대자본으로 승자독식 우려” vs “K-콘텐츠 글로벌 확산 기대”

‘넷플릭스 韓투자’ 엇갈린 반응

韓 OTT 1위 티빙, 영업적자 56%
더 이상의 투자 확대 쉽지 않아
넷플릭스 점유율 38%... 장악력 ↑

창작 산업 부활·연계산업 후방효과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000억원)를 투자에 대해 OTT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가입자 이탈 등 정체기에 놓인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어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냉담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오징어 게임'에 제작비로 253억원을 들였지만, 9억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경제적인 수익을 내면서 한국의 콘텐츠의 가성비가 뛰어



넷플릭스.

/넷플릭스

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그간 투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때문에 제작 규모와 제작 편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4년 간 3조 3000억원을 투자한 그간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에 투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넷플릭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한국 콘텐츠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OTT들에게는 이번 넷플릭스의 투자 발표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 OTT 기업들도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적자를 내며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OTT 업체들에게는 더 이상의 투자 확대가 쉽지 않다.

국내 OTT 업체 1위인 티빙은 지난해 영업적자가 전년보다 56%나 늘어난 119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웨이브도 지난해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2배

나 증가한 1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의 38%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과 합병해 국내 업계 1위로 부상한 티빙은 18%, 웨이브는 14%, 쿠팡플레이는 11%이다. 왓챠의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왓챠는 회사 매각과 동시에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다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다.

OTT 업계에서는 "거대자본을 동원한 넷플릭스가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넷플릭스의 쏠림 현상이 심한 데, 향후 넷플릭스가 콘텐츠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시장의존도가 더 심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는 망 사용료 법안에서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체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도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ISP(인터넷제공업체)에게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드라마 및 영화에 투자하게 되면 창작 산업은 살아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콘텐츠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투자는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에 자금줄이 될 수 있다"며 "190개 이상 국가로 서비스되는 넷플릭스를 통한 K콘텐츠, 한류문화 확산 등 효과도 뚜렷하다. 또 IP를 바탕으로 한 웹툰, 웹소설, 음악 등 연계된 콘텐츠 산업의 후방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이창양, 韓-美 첨단기술 동맹 '보스턴 다이내믹스' 깜짝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대차 그룹 로봇 개발 핵심 거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첨단 로보틱스 사업 글로벌 핵심 거점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깜짝 방문했다.

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 내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등과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찾아 창업자 겸 로봇 인공지능(AI) 연구소 소장인 마크 레이버트, 제이슨 피오릴로 최고법무책임자(CLO)

등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6일 양국이 워싱턴 공동성명을 통해 "외교 안보를 넘어 첨단 분야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다짐한 가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 일행은 회사 내에 마련된 역사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초창기부터 개발한 다양한 역대 로봇들을 둘러본 후 회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992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분사해 설립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로봇 개발로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자율주행(보행), 인지, 제어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이 장관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구 개발(R&D) 랩에서 이 회사의 대표적인 로봇 모델인 스팟, 아틀라스, 스트레치의 주요 특징 및 적용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듣고 로봇들의 다양한 동작 시연을 직접 참관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가정의달 'TV 슈퍼빅세일'

17년 연속 TV 세계판매 1위 기념

삼성전자 TV가 가정의달에도 저렴하게 판매된다.

삼성전자는 5월 1일부터 전국 오픈라인 매장에서 '2023 삼성 TV 슈퍼빅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7년 연속 TV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마련됐다. 98형 초대형 TV와 더 프레임, TV 액세서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98형 Neo QLED, QLED TV는 각각 최대 300만원, 1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더한다. '거거익선' 트렌드로 전년

대비 판매가 3.5배나 성장하는 98형 초대형 TV 수요를 겨냥했다.

더 프레임은 40만원 추가 할인 혜택과 함께 샌드골드 색상의 메탈 소재 더 프레임 베젤 동시 구매 시 최대 75% 할인 혜택을 증정한다.

네오 QLED와 QLED 구매시 TV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액세서리 더 트레이를 5만원에 제공한다.

5월 15일 전에 행사 제품 구매시 최대 34만원 상당 더블 혜택도 있다. 5월 중으로는 네오 QLED 날말 퀴즈와 룰렛 당첨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김재용 기자 juk@